

북핵 6자회담 언제 재개될까?

美·中 '조기속개' 기대...1월말·2월초 될듯

북핵 6자회담은 언제 속개될 것인가.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6자회담의 '조기 속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BDA 실무회의 전후 가능성 높아

결과가 없었지만 다음번 회담에선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모종의 구체적인 조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1월 말에서 2월 초에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해진다. 13개월 만에 열렸던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차기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지 못하고 지난달 22일 '휴회'로 끝났을 당시 분위기가 비관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대조적이다.

정부 소식통은 9일 "북한은 지난번 열린 BDA(방코델타아시아) 실무회의에 상당한 관심과 집착을 보였다"면서 "따라서 BDA 회의를 속개하기로 한 상황에서 6자회담의 동력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법안 처리 전망 어두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9일 국민연금 개혁법안 처리와 관련, "지금으로서 (처리) 전망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북 과업관철 쉼기모임 지난 8일 평양에 있는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새해 공동사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 하기 위한 청년들의 쉼기모임이 열리고 있다.

"골드상호신용금고 부실 아니었다"

검찰, 이근영 전 금감원장 이르면 오늘 소환

김홍주(58·구속)씨가 2001년 인수를 시도했던 골드상호신용금고가 당시 부실 금고가 아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들이 김씨의 금고 인수 작업을 도왔던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골드상호신용금고는 부실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금고였다. 다만 주식 배당이 잘못돼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을 뿐 결코 부실금고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 "기지이전 지연 땀 싸울 것" 발언 미묘한 파장

한미 불협화음 확대해석 우려

버웰 벨(사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9일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일정이 지연되면 "싸울 것"이라고 발언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했다"며 "사령관 입장에서는 주택이 하루속히 제공돼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고 이를 위해 기지가 빨리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여성 관리 특별기구 필요"

강금실 여성인권대사

외교통상부의 여성인권대사로 활동 중인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인권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간 이주여성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대사는 "베트남 관계자들을 만나 보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면서 "베트남의 여성동맹이 여성인권문제를 총괄하는 것처럼 국내에도 이주여성 문제를 총괄하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동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경동보일러 구매 문의: 광주 062)673-4961, 전남 010-9469-9373

2007년 신재생에너지지열시스템 국가 보조 사업 안내.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지열시스템추진사업. www.helppg.com